

리서치게이트를 통해 본 전문연구자 정보 네트워크 플랫폼의 사용자 동인 연구

이현정*

*중앙대학교 융합교양학부

e-mail: bonoanimi@cau.ac.kr

Motivation to Use of Information Networking Platform for Researchers: The Case of ResearchGate

Hyunjung Rhee*

*School of Convergence and Liberal Arts, Chung-Ang University

요 약

개방과 협력의 시대로 불리는 현재, 학문분야의 융합과 소통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되었던 가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랜 세월 전문 영역의 틀로써 명확히 분리되어왔던 학자들이 다른 영역의 연구자들과 자유롭게 협업 및 교류하는 상황은 쉽게 일어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본 연구는 온라인 네트워크 플랫폼에 주목하였다. 특히 학문 진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을 연결하는 세계적인 플랫폼인 리서치게이트의 사례를 통해 사용자 동인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리서치게이트 이용자들이 대한 사용성 평가 설문 및 FGI를 계획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 전문연구자 정보 네트워크 플랫폼 개발 방향에 대해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1. 서론

21세기를 대표하는 키워드로 개방과 협력을 들 수 있다. 국가경제 발전의 미래가 기술혁신의 성패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개방과 협력은 산업 전 분야에서 필수적 요건이 되었다. Adner는 성공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생태계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혁신에 대한 위험을 분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1]. 어떤 뛰어난 아이디어도, 유용성이 발현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태되어 버리기 십상이다. 적합한 환경이라는 것은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부터 최종소비자까지 아이디어와 연결된 모든 가능성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경쟁보다는 함께 환경을 만들어 갈 파트너십에 대하여 강조하는 현재의 시대성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산업에만 국한된 양상은 아니다. 학계에서도 융합을 통해 새로이 학문의 개발·확장을 독려하는 바람은 이미 새롭지 않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분리된 전문 영역의 연구자 및 학자들이 다른 영역의 그들과 학문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하는 이상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드물 수밖에 없다. 비슷한 영역 연구자들 간 학문적 교류도 학회나 콜로키움·세미나 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극적인 성격의 연구자들은

교류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행히도 첨단기술의 발전과 함께 탄력을 받는 초연결성은 이러한 현실적 상황의 해결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ResearchGate(리서치게이트, 이하 RG)는 융합연구 발전을 위한 해결책 제시 관점에서 충분한 연구 가치를 가진다. RG는 2008년 개설된 이래 세계적으로 천오백만 이상의 가입자들을 보유할 정도로 높은 영향력을 자랑하는 대표적 전문연구자 정보 네트워크 플랫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RG 플랫폼 사용자들의 동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연구자들의 교류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할 것이다.

2. 리서치게이트 개요

RG는 세 명의 이공학 연구자들이 주축이 되어 개발된 사이트로서, 초반에는 연구자들이 실패한 실험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나누는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점차 연구자들 간 비공식적으로 연구정보를 교환하는 채팅 장소로서 성격이 강해지면서 현재의 전문정보 네트워크 플랫폼으로서의 기틀을 갖추게 되었다[2]. RG의 주요 수익원은 펀딩으로, 2017년 시리즈 D단계[1]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 골드만삭스 등을 비롯한 유수의 기업들에게 미화 총 5천2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3]. 이는 RG의 높은 기업 가치와 더불어 미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현재 RG는 연구자 간 팔로우를 통한 업데이트 정보 제공, 연구 관련 질문 서비스, 연구자료 공유의 장 제공, 잡 포스팅, RG주관 학술지 랭킹 제공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RG는 머신러닝을 통해 연구자들의 연구정보를 자동으로 찾아 업데이트하고, 연구자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관심 분야 정보 및 연구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천해준다. RG 사이트는 연구자들이 관심 가질만한 내용들과 팔로워의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비교적 단순하게 화면이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RG는 연구자 정보를 기반으로 높은 유용성과 네트워크 효과의 강점을 갖추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도 한다. 그 중 하나는 저작권 문제로, RG에서는 회원들이 회원 간 요청을 통해 연구물 전문을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요청을 받은 연구자가 사이트에 자료를 게시하면, 이 게시물은 모든 회원들에게 공유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연구물에 대한 실질적 저작권을 가진 출판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행동으로 논란을 빚어왔다[5]. 뿐만 아니라, 유명저널과 같은 가짜 저널들을 잘 걸러내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기도 한다[6]. 이런 문제들은 연구자 보호와 관련하여 RG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그림 1) RG를 인용한 뉴스기사

그럼에도 2019년 현재, RG 사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천오백만 이상의 가입자들을 보유하고하며, RG에서 리포팅한 자료들에 대한 뉴스 기사들의 인용수준이 (그림 1)과 같이 높은 수준인 만큼 학술연구 분야의 가장 큰 소셜 미디어로서

1) 시리즈 A, B, C, D...로 이어지는 투자는 벤처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다른 목적을 가진다. 이 중 시리즈 D 투자는 수익률에 중점을 두는 단계를 의미한다[4].

강한 영향력을 자랑한다. 국내 많은 수의 연구자들도 RG를 통해 세계 연구자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RG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용 동인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는 네트워크 플랫폼을 활용한 국내 연구자 간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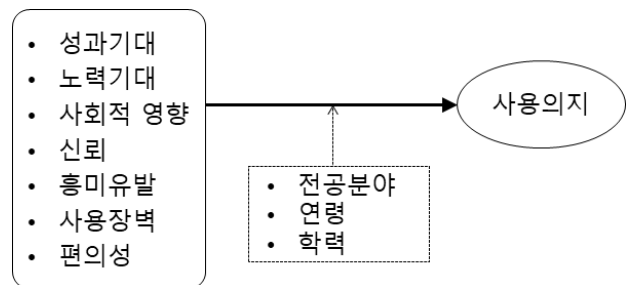
연구문제 1. RG를 이용하는 국내 연구자들은 RG를 통해 어떤 성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가?

연구문제 2. RG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국내 연구자들의 활용성이 높은 서비스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 현재 국내 연구자들이 RG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재 RG를 이용 중인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연구자 중심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활용성을 위해 특히 강조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 알아볼 예정이다. 사용성 평가를 위한 척도는 Venkatech 등이 개발한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모델[7]을 참고하여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RG 수용에 대한 연구모형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RG 활용 빈도가 높은 연구자들에 대해 Focused Group Interview(FGI)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학문분야 별 다른 동인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열어두고, 이공계 및 인문사회 계열 각각 4~5명 정도의 연구자들을 모집하여 인터뷰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터뷰 대상 연구자들에게는 사용성 평가 척도를 바탕으로 RG 이용성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개선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학문분야 별 연구 활동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여 추가적인

연구 활동 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 수집해보고자 한다.

4. 예상 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예상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RG를 이용하는 국내 연구자들이 다른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루기를 기대하는 성과에 대해 확인한다. 덧붙여 도출된 기대성과에 대한 중요도도 파악한다.

FGI 결과를 통해서 RG에서 활용성이 높은 서비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평가 내용을 도출한다. 또한 RG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확인함으로써, 전문연구자 정보 네트워크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정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 전문연구자 정보 네트워크 플랫폼 개발 방향에 대해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Adner, Ron (2012). "The wide lens: A new strategy for innovation" Penguin UK.
- [2] <https://bits.blogs.nytimes.com/2012/08/03/failure-is-the-next-opportunity/?module=Search&mabReward=relbias%3Aw%2C>
- [3] <https://www.geekwire.com/2017/researchgate-funding-bill-gates/>
- [4]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a55762e4b082d775e01bba?utm_id=naver
- [5]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8-06945-6>
- [6] Memon, A. R. (2016). ResearchGate is no longer reliable: leniency towards ghost journals may decrease its impact on the scientific community. J Pak Med Assoc, 66(12), 1643-1647.
- [7] Venkatesh, V., Morris, M. G., Davis, G. B., & Davis, F. D. (2003). A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MIS Quarterly, 27(3), 425-478.